

## 【 해외금융 뉴스: 복미 】

### 미국 보험산업, 점진적 회복 전망

- 2009년 이후 가격경쟁과 보유계약감소 등으로 고전해온 미국 보험산업은 2010년 들어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으며, 향후 점진적 회복세와 함께 인수합병을 통한 보험회사의 대형화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.
  - 가격경쟁 지속과 보험관련 법제도 변화 등이 앞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, 특히 금융개혁법 통과로 인한 감독규제의 불확실성, 새로운 건강보험 제도 도입 등이 보험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.
  - 또한 경쟁심화로 인해 인수합병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이로 인한 대형사의 시장 점유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.
- 생명보험산업은 안정적 성장이 전망되나 부동산담보대출 자산의 손실이 지속될 것이며, 건강보험 산업은 건강보험개혁법 통과로 수익성의 장기적 하락이 예상되고 있음.
  - 생명보험 자산 중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의 높은 비중, 변액연금 시장의 부진 등이 함께 수익성 악화의 주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됨.
  - 그러나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생명보험산업은 경기회복과 함께 서서히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며, 신용평가사 무디스(Moody's)는 2010년 3월 생명보험산업에 대한 전망을 “부정적”에서 “안정적”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음.
  - 건강보험산업은 건강상태에 따른 선택적 보험가입 심사가 건강보험개혁법의 시행으로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손해율 악화가 예상되나 건강보험 가입대상 증가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상존함.
- 손해보험산업은 금융시장 안정과 함께 투자손실의 감소, 보험인수 능력의 회복 등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, 재보험산업은 신계약 감소, 경쟁 심화로 등으로 시장 규모가 계속해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.
  - 미국 손해보험 산업은 2008년 허리케인 피해와 2009년 채권가치 하락의 여파로 보험인수 능력이 크게 저하되고 보험료 수입은 감소하였으나 최근 들어 회복 징후가 나타나고 있음.

(The Street, 8/4)